

□ 경제분과 권고안

< 종합의견 >

- 운곡천 유역 홍수피해 저감과 용수공급대책으로 봉화군에서 검토 요청한 봉화댐과 관련하여 경제분과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.
- 지역 특성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, 농업용저수지 재개발, 천변저류지, 하천정비 등 댐 이외 홍수방어 대안은 실행가능성이 낮아, 지역에서 적극 요청하는 봉화댐 추진이 더 타당함을 제시.
 -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은 지형적으로 추진 어려움, 천변저류지는 지형적 한계와 홍수피해 저감효과가 낮음.
 - 하도확폭 및 제방증고는 국가기반시설 등 간섭, 국가 재정 낭비 소지, 대규모 주민 이전필요, 제방증고 시 공사비는 댐공사비 보다 많이 소요됨.
- 또한, 위원 의견으로 댐건설로 인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는 노력이 필요하며,
 - 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 및 관광 자원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필요.
- 제시된 자료가 댐 기본구상 수준으로서 검토에 한계가 있음.

< 위원 의견 >

(위원) 김원석, 허현승

- 운곡천 유역은 '02년 태풍 '루사', '03년 태풍 '매미', '08년 집중호우 (특별재난지역 선포)로 지속적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홍수피해 저감대책으로 봉화댐을 검토.
- 춘양면의 홍수피해 예방과 백두대간 수목원 등 필요 용수공급을 위해서 봉화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.
- 홍수방어 대안으로 농업용저수지 재개발, 천변저류지, 하천정비 등을 검토한 결과.
 - 농업용저수지 재개발은 수용량이 작고 계곡부가 아닌 평지에 위치하는 등 지형적인 이유로 어려움.
 - 천변저류지는 충분한 저류공간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홍수피해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.
 - 하도 확폭 및 제방증고 등 하천정비는 국가 기반시설(영동선) 이전, 최근 복구된 하천의 재정비 등 국가 재정 낭비 소지, 대규모 이주로 사회적 논란 예상됨. 또한 제방증고시 공사비는 약 394억원으로 댐 공사비 273억원 보다 많이 소요됨.
- 저수면적이 작고 수물가구가 약 10가구 정도로 사회적 논란이 적고, 지역에서 적극 요청하는 봉화댐 추진이 합리적.

(위원) 허현승

- 댐과 봉화군 개발계획을 연계,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가편익 창출 노력.
- 댐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필요.

참 고**경제분과 참여위원**

중앙위원		지역위원	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허현승	연세대 경제학부	김원석	봉화군